



즉시 배포용: 2023년 10월 10일

KATHY HOCHUL 주지사

**HOCHUL 주지사,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반기를 게양하도록 지시**

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최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10월 11일 수요일부터 주 정부 청사에 반기를 게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
**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** "뉴욕은 이스라엘 및 유대인 커뮤니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스라엘 밖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가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로서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, 이 커뮤니티가 현재 그리고 매일 지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"

Hochul 주지사는 지난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계기로 뉴욕주 경찰에 순찰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라고 [지시](#)하고,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증오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 조정을 강화하도록 거듭 촉구했습니다. 토요일, Hochul 주지사는 이스라엘 정부와 연계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푸른색과 흰색으로 점등할 것을 [지시](#)하기도 했습니다.

Hochul 주지사는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다양한 유대인 커뮤니티 지도자 및 선출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, 현재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뉴욕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